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6 권 93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미 사 성 가	입당 (69)	봉헌 (217)	성체 (161)	파견 (68)
---------	---------	----------	----------	---------

**2017 년도 구역 및 구역원 명단**

**1 구역:** 장 글라라(구역장), 유 요한, 유 마리아, 오 베드로, 오 루시아, 손 아놀드, 손 쟈마, 최 요안나, 최 마태오, 이 요한, 이 마틸다, 이 그레이스, 이 데레사, 전 제노베파, 김 안드레아, 김 마르타, 황 가롤로

**2 구역:** 김 유스티나(구역장), 김 마론, 김 헬레나,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김 글라라, 홍마르코, 홍야네스,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이 글라라, 이 안젤라, 김 요아킴, 고 안나, 김 유스티노

제1독서 | 지혜 6,12-16

화 답 송 | 시편 63(62),2.3-4.5-6.7-8(© 2차 참조)

-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하고, 온밤 지새우며 당신을 목상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

제2독서 | 1테살 4,13-18 <또는 4,13-14>

복음환호송 | 마태 24,42.44 참조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다.◎

복 음 | 마태 25,1-13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은인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1/12	이 마틸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1/19	이 그레이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11/26	유 요한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12/3	이 마틸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1/5	\$178	\$86	\$70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0/21	이 바오로/ 이 빅토리아	11/25	손 아놀드/ 손 쟈마
10/28	장 글라라/ 이 데레사	12/2	김 헬레나/ 박 세라피나
11/4	황 가롤로/ 김 안드레아	12/9	이 글라라/ 김 글라라
11/11	오 베드로/ 오 루시아	12/16	이 안드레아/ 이 안젤라
11/18	김 마론/ 최 마태오	12/23	이 요한/ 이 마틸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깨어있는 당신을 위해

김성면 루카 -가수-

고등학교 시절 밴드를 결성하면서부터 줄곧 노래를 해왔으니 제 인생이 곧 음악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결코 녹록지 않은 길이었지만 무대에 오르면 벽찬 희열과 전율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토록 가슴 뛰는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라 여기며 언제나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한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 걱정도 많았습니다. 스케줄에 쫓기다 보면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록이라는 음악 특성상 고음을 주로 쓰기 때문에 관리도 소홀히 하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대에 오르면 음악과 몰아일체가 되어 혼신의 힘을 쏟아 아붓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다음 공연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이죠. 그룹 피노키오로 활동했을 때도 무리하게 잡아놓은 공연 일정에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16일 동안 21회 공연을 해야 한다는건 연극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회가 지나자 목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환부를 해줘야 하나 고민할 정도였어요. 실례는 마음으로 공연장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선 관객들을 떠올리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연습을 조금만 할걸.’, ‘공연 때 적당히 해야 했나?’ ‘내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어찌지?’ 그런 자책과 불안이 목 상태를 더욱 악화 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마태 6,34)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와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12월 7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7시

이번 임원회의는 사정으로 인하여 11/19/17 오후 7시로 이동합니다. 임원께서는 참고하시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사제관 입니다.

감사합니다. (11월 5일 하마йка 가을축제)

지난 주 하마йка 축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형제 자매님이 동참하여 봉사해 주셨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되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은 위령성월 입니다.

미사전 위령성월 기도를 합니다.

비치된 위령성월 봉투에 돌아가신분의 본명을 적어 봉헌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성가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8:30

지난 화요일 기도 성가 모임에 참석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의: 박 바오로 (661-342-7130) 모임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저는 최선을 다하여 공연에 임했습니다. 두려움에 주춤거리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은 하느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걱정하는 일이 교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적당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를 거듭할수록 거짓말처럼 목이 풀리면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날개가 달린 듯이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쓰러지기 직전 하느님이 제 손을 잡아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공연을 하고 있는데 울고 있는 관객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공연을 포기했다면 결코 마주할 수 없던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을 마치자마자 저는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수고했다. 아들이” 라고 응답하시는 것 같아 자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K2 시절, 수많은 공연과 방송, 대학 축제 때에도 저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올봄, 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 <눈빛만 들려> 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픈 마음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걱정과 고민을 잠재우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성심을 다한다면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시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능케 하시는 하느님. 저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 <서울주보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일함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성요한바오로2세 교황-